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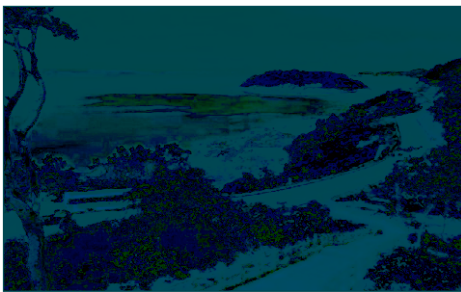
디자인 명품도시 창조를 꿈꾸는 ‘천년의 빛’ 영광

Glory 영광, 대한민국 1등군 영광

전라남도 북서쪽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아름답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옥당골’이라 불렸으며, 친환경적 농어촌 경관과 색다른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고장이다. 최근 이 인구 6만의 소규모 군이 변화하고 있다. 자연의 위대함은 신이 창조하지만, 도시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공감 속에 시작된 공공디자인 사업이 ‘영광’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세계 5대 청정 갯벌과 수려한 자연경관, 낭만적인 노을 등의 자연환경과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하는 전남의 첫 관문지인 영광. 영광군은 “Glory 영광, 대한민국 1등군 영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특색에 맞는 사람 중심의 편리성과 조화성, 안전성, 도시미관을 살린 군을 만들고자 도시녹색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디자인 명품도시 만들기’ 추진



영광 백수해안도로 노을길(2.3km) 및 노을 광경

그 첫 번째가 영광 백수해안도로 노을길(2.3km) 및 노을전시관 조성사업이다. 총 길이 16.8 km에 이르는 백수해안도로는 석양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으로, 인근에는 관광휴양단지인 해수온천랜드, 칠산 전망대, 영광 칠산도 꿩이갈매기·노랑부리백로·저어새 서식지, 모자바위·거북바위 등 기암괴석과 해수점이 있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영광군은 지리적·지명적 특성과 차별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석양노을을 테마로 하는 노을전시관을 완공하여 야간경관을 형성, 지역의 상징성을 높였다.



노력의 결실을 맺다



앞으로 나아갈 길

